

하루 더 밀린 한국시리즈... 백지상태서 다시 시작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2차전 그라운드 사정 탓 오늘로 순연 6회초 0-1 무사 1·2루서 재개 이범호 “동요 않고 상황에 준비” 박진만 “마운드 따라 계획 변동”



포스트시즌 사상 최초로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된 한국시리즈 1차전이 그라운드 사정

과 비 예보로 인해 하루 더 밀렸다. 2차전 역시 함께 순연되면서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가 사실상 백지상태에서 두 경기를 준비할 전망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2일 오후 4시와 6시30분에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IA와 삼성의 2024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과 2차전이 이날 오후 1시50분 부로 순연됐다고 밝혔다.

챔피언스필드가 위치한 북구 입동에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다. 이날 오전 11시를 넘어서며 빗줄기가 잦아들었으나 그라운드 정비에 약 3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고, 오후 7-8시부터 다시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면서 끝내 정상 개시가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은 23일 오후 4시에 KIA가 0-1로 뒤진 6회초 무사 1·2루에서 재개된다. 2차전의 경우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이 오후 5시30분 이전 종료될 경우 오후 6시30분에 개시하고, 오후 5시30분 이후 종료된다면 1시간의 휴식 시간을 부여한 뒤 시작한다.

전날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된 후 이범호 KIA 감독은 긍정, 박진만 삼성 감독은 부정으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던 것과 달리 이날 순연이 결정된 후에는 양 팀 사령탑이 모두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이 감독은 “그라운드 사정과 비 예보로 경기가 순연된 것은 어쩔 수 없다”며 “크게 동요하지 않고 변화된 상황에 맞추겠



22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그라운드가 방수포로 덮혀있다. 이날 재개될 예정이었던 2024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1차전 서스펜디드 경기와 2차전 경기가 비 예보로 인해 오는 23일로 순연됐다.

나건호 기자

다. 코칭스태프와 논의를 잘 해서 내일 경기를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감독도 “어제는 우리 팀에 부상 선수들이 많다 보니 민감하게 생각했다”며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기를 진행했지만 양 팀 선수들 모두 부상 없이 무사히 지나간 것이 다행이다”고 말했다.

다만 같은 날에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과 2차전을 모두 치러야 하기 때문에 양 팀은 사실상 더블헤더를 준비하게 됐다. 한국시리즈가 단기전인 만큼 선수단 운용에 대한 감독들의 구상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KIA의 경우 무사 1·2루 위기에서 경기를 재개하기 때문에 무실점 또는 최

소 실점으로 이닝을 막아줄 투수를 올려야 하고, 전날 경기에서 박찬호의 송구와 서건창의 포구 과정에서 두 차례 실책이 나왔던 수비를 안정화해야 한다.

이 감독은 “투수 코치님들과 얘기하고 있다. 원 볼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고민하고 있다”며 “강공을 할지 번트를 떨지 예상해서 투수를 올려야 한다. 후속 타자가 박병호 선수이기 때문에 원 포인트로 갈지 좌완 중에 제일 좋은 투수를 올릴지도 고민이다”고 언급했다.

박 감독도 “오늘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을 했다면 좌완 이승현을 준비하고 있었다. 리드를 하고 있었고 이겨야 하는 경기라서

필승조를 모두 투입하려 했다”며 “어제는 작전 없이 김영웅에게 맡겼는데 상대 투수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스코어 한 점 차에서 경기가 중단된 만큼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것도 양 팀의 과제다. KIA는 한 점의 핸디캡, 삼성은 한 점의 어드밴티지를 갖고 완전히 새로운 4이닝의 경기를 시작하는 느낌이다.

KIA는 전날 경기에서 김선빈과 김태균이 안타한 개, 김도영과 김선빈이 볼넷한 개씩을 얻어내는 데 그쳤다. 승리를 위해 최소 2점이 필요한 만큼 타격감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다. 삼성은 4안타 3볼넷에 그쳤지만 김현근의 솔로포 한 방으로

점수를 내기도 했다.

이 감독은 “1차전을 두 번 치르는 셈이 때문에 긴장이 확실히 줄어든 상태에서 경기에 임하면 활발한 타격이 이뤄질 것”이라며 “2차전까지는 어떤 선수들이 더 컨디션이 좋을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1루수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라인업으로 간다. 3차전과 4차전은 컨디션을 고려해 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감독도 “우천으로 인한 변수와는 별개로 포스트시즌은 선수들이 결집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선수들이 활기차게 뛰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ilbo.com**

전남드래곤즈 발디비아 K리그2 35라운드 베스트 11

안산 상대 극장 동점골



안산그리너스FC를 상대로 후반 추가시간 극적인 프리킥 득점을 터트리며 값진 승점을 만들어낸 전남드래곤즈 발디비아

가 22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하나은행 K리그2 2024 35라운드 베스트 11 미드필더 부문에 선정됐다.

전남은 지난 19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안산과 홈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거뒀다. 상위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전남은 이날 무승부로 올 시즌 14승 8무 10패(승점 50)를 기록하며 4위에 자리 잡았다.

이어 후반 2분에는 페널티박스 내 좌측 면에서 과감한 하프 발리슛을 시도했으나 빗나갔고, 후반 24분에는 문전 경합 과정에서 흘러나온 공을 강하게 때려봤으나 수비진이 몸을 날리며 막아냈다.

끊임없이 상대 골문을 두드린 발디비아는 후반 27분 김진현에게 실점하며 0-1로 뒤진 전남을 패배 위기에서 건져냈다. 후반 추가시간 2분 윤재석이 얻어낸 프리킥을 가까운 포스트 상단 구석에 정확히 꽂아 넣으며 1-1 균형을 맞췄고, 전남은 값진 승점 1점을 획득했다.

한편 연맹은 발디비아와 함께 공격수 유정완과 마테우스 올리베이라(이상 FC안양), 브루노 파라이바(김포FC), 미드필더 주닝요 호사와 김승호(이상 충남아산FC), 야고 세자르(FC안양), 수비수 오스마르 이바네즈 바르바(서울이랜드FC)와 리영직(FC안양), 이학민(충남아산FC), 골키퍼 양형모(수원삼성블루윙즈)를 베스트 11에 각각 선정했다.

한규빈 기자

‘한국시리즈 1차전 시구’ 김응용, 7년 만에 광주 마운드 올랐다

김성한 시타·김종모 시포

‘한국시리즈 11전 전승의 전설’ 김응용과 김성한, 김종모가 야구장 나들이에 나섰다. 특히 맞대결 상대인 양 팀에 모두 몸담았던 김응용은 영호남 라이벌인 KIA 타이거즈와 삼성라이온즈를 모두 응원하며 훈훈함을 자아냈다.

김응용과 김성한, 김종모는 지난 2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삼성의 2024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 1차전에 앞서 각각 시구와 시타, 시포에 나섰다.

김응용은 1983년 KIA의 전신인 해태의 사령탑을 맡아 취임 첫해 정상을 제패했다. 이어 2000년까지 지휘봉을 잡으며 아홉 차례 한국시리즈 우승을 달성했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삼성 사령탑을 맡아 한국시리즈에서 한차례 우승과 두 차례 준우승을 일궜다.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는 삼성 사장과 고문 등을 역임했다.

김응용은 시구 직후 “2017년 한국시리즈 1차전과 2023년 한국시리즈 5차전에



KIA 타이거즈와 삼성라이온즈의 2024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 1차전이 2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가운데 시구에 나선 김응용(왼쪽 두번째)과 김성한, 김종모가 관중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서 시구를 했는데 이번에도 떨렸다. 성질이 급해 시구도 빨랐다”며 “공교롭게 KIA와 삼성이 만났다. 해태에 18년, 삼

성에 10년을 있었는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경기를 지켜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규빈 기자**